

『한국전자산업환경경영협의회』 창립 출범

전자제품에 대한 해외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환경경영 촉진을 통해 전자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가 발족되었다. 본회는 지난 11월 9일 전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내 주요 가전업체를 비롯하여 컴퓨터, 부품, 디스플레이 업체 등 11개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자산업 환경경영협의회』 창립총회를 갖고 삼성전자 이상배(李相培)부사장을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셋트에서 부품에 이르기까지 전자산업 전반의 청정생산 체제 구축, 해외현지 회수 처리시스템 구축 등의 주요사업 계획을 확정하였다.

그동안 국내 전자산업은 지난해 9월 생산자재활용 자발적협약에 의해 출범한 전자산업환경협회를 통해 국내에서 발생한 폐가전제품에 대한 회수처리사업 중심으로 환경문제에 부분적으로 대처해왔다. 그러나 최근 EU 등 해외 선진국의 환경기준이 갈수록 강화되자 통상 및 산업정책 측면에서 해외 환경규제에 공동 대응하고 전자 산업의 환경 경쟁력을 근원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조직 구성을 더 이상 미룰수 없다는데 업계가 인식을 같이 하게 된 것이다.

李相培 초대회장은 취임인사를 통해 환경경영협의회 발족을 계기로 전자업계가 친환경생산체제를 조속히 구축, 국내외 환경기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협의회는 우선 해외유관단체와 환경분야의 국제협력사업을 강화하여 EU지침 등에 공동대응하여 우리 전자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창립총회에서 정태신 생활산업국장은 대독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격려사를 통해 선진국의 환경규제가 새로운 수출장벽으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 산업계는 생산공정상의 유해물질 사용억제와 제품의 환경영향성평가(LCA)및 환경설계(DfE)기술 개발촉진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므로 정부는 청정생산기술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전자업계는 특히 EU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지침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환경경영협의회를 중심으로 여타 관련단체들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휴대폰 제조업계, 휴대폰산업협의회 창립
- 협의회 구성으로 협력강화 및 현안 적극 대응키로 -

본회가 휴대폰제조업계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창립했다.

지난 11월 22일 국내 제조업계 13개사를 대상으로 본회 대회의실에서 휴대폰산업협의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에 삼성전자의 이기태 대표를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협의회는 향후 국내시장과 해외 시장 양면에서 우리 제조업계 상호간에 건전한 경쟁과 함께 공동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제조업체 대표자들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동종 기업간 친선을 도모하는 한편 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늘날 휴대폰산업의 규모가 연간생산 15조원에 이르고 특히 수출은 70억불 이상으로 무역수지의 최대 효자상품으로 부상되는 등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그 위상에 걸맞는 구심체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에 협의회 창립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제조업계는 휴대폰산업의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과 위상의 제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보조금 폐지 이후 국내시장은 시장 위축과 단가 하락으로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단말기 제조업체 뿐 아니라 20,000여개의 부품납품 및 임가공 업체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이는 IMF사태 이후 사실상 경기를 부양해온 IT산업의 침체 뿐 아니라 국내경기 전반의 침체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관련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관련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조금 금지의 입법화를 추

진(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하고 있어 이것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관련 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제조설비투자 확대 등 제조업 진출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제조업 겸업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강화되고 있어 제조업계,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고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본회는 협의회 창립을 계기로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서 제조업계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한편 이동통신분야의 각종 규제완화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협력사업으로는 특허, 국내외 인증 등에서의 대응능력 제고 및 협력, 수출·내수 등 각 분야 부서장 모임 활성화를 통한 정보교환 및 협력, 중국 등 해외유관기관 및 기업과의 공동협력사업, 기술개발 및 구매분야에서의 공동사업, 용어·부품 등의 표준화 등이 추가 될 것이다.

동 협의회는, 이와 같이 제조업계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 관계 인사 초청 간담회 등을 통해 대외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사업자, 부품 임가공업체 등과의 상호 균형 발전 및 협력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